

LG화학, 마루바닥재 공급으로 전환

녹차 함유 <LG 건강마루 수목원> 출시 ... 마루바닥재 시장 50% 상회

LG화학은 녹차와 은나노를 적용한 마루바닥재 <LG 건강마루 수목원>을 출시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마루바닥재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.

건강마루 수목원은 녹차를 함유해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(Formaldehyde) 등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춰 한국공기청정협회 인증과 일본 건축자재 인증 <F Star>의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국내외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.

또 은나노 기술을 적용해 곰팡이 서식을 방지하고 포도상구균을 99.9%까지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.

LG화학은 전체 바닥재 시장에서 마루바닥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-40% 내외에서 최근 50% 이상으로 급성장하는 추세여서 본격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LG화학 장식재사업부장 이인대 상무는 “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현재 4000억원 정도인 마루바닥재 시장에서 2008년까지 50%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03/29>